

# 광주 나들목 지역 예술작품으로 반긴다

랜드마크 기대...광주폴리IV(관문형폴리)

광주비엔날레 현상공모... 31일 현장설명

광주시와 (재)광주비엔날레가 광주 나들목에 광주를 상징하는 조형물(관문형 폴리)을 설치할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관문형 폴리는 건축사와 예술가(국·내외 공공미술전문가 또는 건축가 등) 협업 형태의 '광주폴리IV(관문형 폴리) 기본 및 시설 설계 현상공모'를 오는 3월 5일까지 진행한다. 광주폴리IV(관문형 폴리) 기본 및 시설 설계 작품 현상공모는 국내 건축사와 공공미술전문가 또는 건축가 등의 예술가가 공동 참여하는 형식으로 건축사의 기술적인 면과 국내외 예술가의 창의성 및 독창성 요소가 결합되면서 광주다운 미와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공모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관문형 폴리 설치 장소는 외지인이 광주에 진입했을 때 처음 만나는 전남 장성군 남면에 위치한 광주톨게이트 일원이다. 광주 전역 곳곳에 소형 건축물을 설치했던 지난 광주폴리 I·II·III에서 확장되어 광주폴리 IV는 광주 진입로인 광주톨게이트를 활용한 예술적·건축적 요소를 갖춘 관문형 광주폴리로 기획되면서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현상공모에 대한 현장설명 및 질의응답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작품 제출이 가능

하다. 별도의 참가 등록은 없다. 현장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은 2월 1일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품제출 기간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이며 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부(2층)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재)광주비엔날레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평가 기준, 심사 시기 및 방법은 홈페이지에 추후 공고 예정이다. 입상작은 3월 중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등(당선작 1점)은 계획 및 시설설계권(예정설계비 1억원)이 부여되며, 우수작(1점) 상금 10천만원,佳作(2점)은 상금 각 500만원이다. 한편 지난 25일 개최된 제3기 광주폴리 시민협의회 8차 회의에서는 광주폴리IV(관문형 폴리)의 설치 장소에 대해 외지인이 광주에 들어오는 관문인 장성군에 위치한 광주톨게이트가 상징성과 효과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모 방식에 있어서는 시설설계임을 고려해 전국 건축사 대상의 공개 공모로 참여의 폭 확대 및 공정성을 높이며 8년 간 구축해온 광주폴리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고 작품의 질적 보장을 위해 국내외 예술가와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011년 광주광역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 광주폴리의 첫 삽



광주폴리IV(관문형폴리) 설치 장소인 광주톨게이트 일원.



동구 장동로터리의 후안 헤레로스 작 '소통의 오두막'

을 뜬 이래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한 광주폴리 I 11개, '인권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한 광주폴리 II 8개, '도시의 일상성&#8211;맛과 멋'을 주제로 한 광주폴리 III 11개 등 총 30개의 광주폴리를 광주 전역에 설치하면서 광주 도시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주만의 정체성을 반영할 광

주폴리IV인 관문형폴리가 완공되면 더욱 문화·예술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폴리IV(관문형폴리) 기본 및 시설 설계 현상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https://www.gwangjubienale.org>) 참조.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소통하고 열심히 일하는 광주예총 만들겠습니다”

'12년 만의 신임 회장' 임원식



임원식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 차기 회장 당선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최규철 회장이 이끌어온 광주예총을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29일 차기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이하 광주예총) 회장으로 당선된 임원식(78) 당선자는 이같이 말했다. 임 당선자는 이날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공연장에서 대의원, 임원진, 감사 등 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9 정기총회' 및 차기 회장 선거에서 총 62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임기는 2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상대 후보였던 한갑수 현 광주예총 부회장은 34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12년 만의 수장 교체'라는 점에서 지역 예술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임 당선자는 가장 먼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정작 지역 문화인과 예술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다”며 “소통하는 광주예총, 확실히 명쾌한 광주예총, 열심히 일하는 광주예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예총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합의제를 운영하고, 모든 사업의 예산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예술인 복지카드 발행'과 '장학재단 설립'도 언급했다. 임 당선자는 “광주 예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를 통해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시아문화전당과 국·공립 공연장의 공연 등에 할인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 발행과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 자녀와 가정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아트페스티벌을 협회별 특화된 무대를 통해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성장시키겠다”며 “미술의 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확장해 연극, 무용, 국악, 문인, 건축, 사진 등 전 장르가 융합된 곳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200석 규모의 전용 공연장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박사이자 광주문인협회장인 임 당선자는 '당신의 뒷날' 등 15권의 작품집과 서평집, 칼럼집을 출간했으며 광주시인협회장을 역임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 차세대 연주자들이 선사하는 러시아 음악의 진수

박유신&김현정 듀오 러시아이름 '러시안 첼로'

2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차세대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첼리스트 박유신과 피아니스트 김현정이 만나 러시아의 로망틱 첼리스트의 진수를 선보인다. 첼리스트 박유신과 피아니스트 김현정은 오는 2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듀오 러시아이름 'Russian Cello' 공연을 연다. 박유신은 지난해 아나톨리 국제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하며 2019년 가장 주목해야 할 신인으로 떠올랐다. 흠집을 데 없는 테크닉과 온화한 음색, 풍부한 색깔을 자랑하며 유럽 음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한 박유신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 발전에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박유신과 함께 러시아 음악의 진수를 보

여줄 연주자는 안정적인 기술과 깊고 따뜻한 소리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현정이다. 각 분야의 떠오르는 차세대 연주자들의 만남은 이번 듀오 러시아이름에서는 러시아 음악의 진면모를 감상할 수 있다. 러시아 로망틱 소나타를 아카데미하게 선곡하며 평소 두 연주자가 애정을 가지고 즐겨 연주하는 20세기 대표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 사제 관계였던 미야스코프 스키와 프로코피예프, 러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첼로 소나타를 작곡한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들로 구성, 러시아의 낭만주의의 정점을 찍는다. 기교적으로 매우 화려하기로 유명한 네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김현정

기획부터 개최까지 축제, 청년의 힘으로

광주시, '세계청년축제' 총감독 공모

광주광역시시는 올해 7월 열리는 '제5회 세계청년축제'의 청년총감독을 공개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2019년 1월1일 기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축제·공연 기획운영 경험이 있으면서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이전에 3년 이상 광주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한다. 오는 2월11일부터 12일까지 시청 청년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청년총감독은 축제 전반을 총괄하고, 지역의 청년문화인력을 중심으로 축제기획단을 구성해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프로그램 기획·개발까지 청년이 중심된 축제를 이끌게 된다. 또한, 축제와 문화에 관심이 높은 다양한 지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창구역할도 맡는다. 문의 062-613-2722.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문화전당·극장 50% 할인 서비스 이용하세요



30일은 '2019 황금 돼지해' 첫 번째 '문화가 있는 날'이다. 지역에서는 특별한 문화의날 이벤트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시립미술관은 무료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0%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영화팬이라면 이날을 골라관람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는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상영되는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영화·공연·전시·박물관·도서관·프로스포츠 경기 등에서 무료 공연 또는 할인서비스를 한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1월30일)과 해당

주간(1월28일-2월3일)에는 전국에서 문화행사가 열린다. 눈에 띄는 전시로는 제3차 시점에서 북한을 분석하고 풀어나가 평양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해보는 전시 '영국에서 온 메이드인 조선: 북한 그라피컬디자인' 전(서울 흥덕대 대학로 아트센터 갤러리)도 30일 입장객에게 50% 현장 할인 혜택을 준다. 제주도립김정열미술관 김장영 화백 전시 '정신으로서의 물, 물방울과 얼룩'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연극, 뮤지컬 공연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동명 영화가 원작인 뮤지컬 '플레이시맨스' 내한 공연(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30일 전석 30%를 깎아준다. 한편 올해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을 이달 말부터 접수한다. 사업별 공모 내용을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 김성대 작가 회화대상전 대상 수상

### 남루한 동네에 피어난 '붉은 꽃'

치밀한 기법으로 표현한 절망과 희망의 긴장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대 작가의 '붉은 꽃'이 제17회 대한민국 회화대상전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가 공모전으로 추진하는 이번 회화대상전에는 40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김 작가의 '붉은 꽃'을 '서늘한 달빛 아래 처연한 골목이 따뜻하게 그려진 수작'으로 평가하며 대상으로 선정했다. '붉은 꽃'은 캔버스 위에 돌 부스레기 같은 푸른 계통의 스톤 스프레이를 뿌려 건조한 후 밝은 빛을 찾아가는 기법으로 제작했다. 울트라마린, 플루시안 블루로 채색하여 화면의 깊이와 과거의 유년시절의 추억을 연상시킨다는 평이다. 화면에 들기루를 얹혀 대상과 대상과의 경계를 선명하게 표현하지 않고 다소 뿌옇게 흐림으로써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 작가는 "달빛은 사람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편견 없이 세상을 비춘다. 이렇게 차



김성대 작가

별 없는 평등의 미학인 달은 마을로 내려와 따스한 온기를 뿜으며 달동네와 나를 품어 주었다. 그리고 그 빛은 나의 고독하고 가련한 영혼을 치유하는 듯했으며, 중년이 된 지금에서 내가 절망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유년시절 달동네 삶의 고통과 따스한 달빛이었다"고 밝혔다. 서기문교수(전남대 미술학과)는 "작장 생활을 함께하면서 기법이나 기량면에서



김성대 작 '붉은 꽃'

는 웅만한 전업작가들을 상회하는 표현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캔버스 위에 미디어와 유채를 자유자재로 쓰면서 꼼꼼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해내는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고 호평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작가는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초대자가 자격과 함께 회화대상전 심사위원으로 자동 위촉된다. 김성대 전남대 사범대 미술교육과와 대학

원 출신으로 광주여고에 재직 중이다. 아트페어와 50여 차례 단체전, 4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회화대상전'은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가 젊고 참신한 작가를 발굴해 창작을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대상 수상작가에게는 내년 1월 경 대한민국회화대상전 당선작 전시의 부스 개인전을 열어준다. 양기원기자 ginaulove@srb.co.kr

## 담양 담빛예술창고 인터랙티브 전시 '사유의 정원, 소쇄원을 거닐다'

누정문화의 산실인 담양 소쇄원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전시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3월 31일까지 '남도문예르네상스 인터랙티브 콘텐츠 전시:사유(思惟)의 정원, 소쇄원을 거닐다'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전시는 '소쇄의 시(時)'와 '덧으로 이룬 공간, 소쇄원' 총 2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소쇄의 시(時)'는 소쇄원 사계 풍광과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소쇄원48영(瀟灑園四八詠)'을 3D그래픽으로 구현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다. 전시 콘텐츠 앞에 서면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계절별로 변화하는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덧으로 이룬 공간, 소쇄원'은 소쇄원의 창건자 양산보와 함께 소쇄원을 걸어보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가상현실 콘텐츠다. HMD 헤드셋을 쓰고 양산보와 함께 소쇄원 곳곳을 거닐어보면 자연과 함께 학문을 고민했던 선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전시관에는 송창근 사진작가의 '소쇄원 48영' 사진전도 함께 이뤄진다. 문의 061-339-6973.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